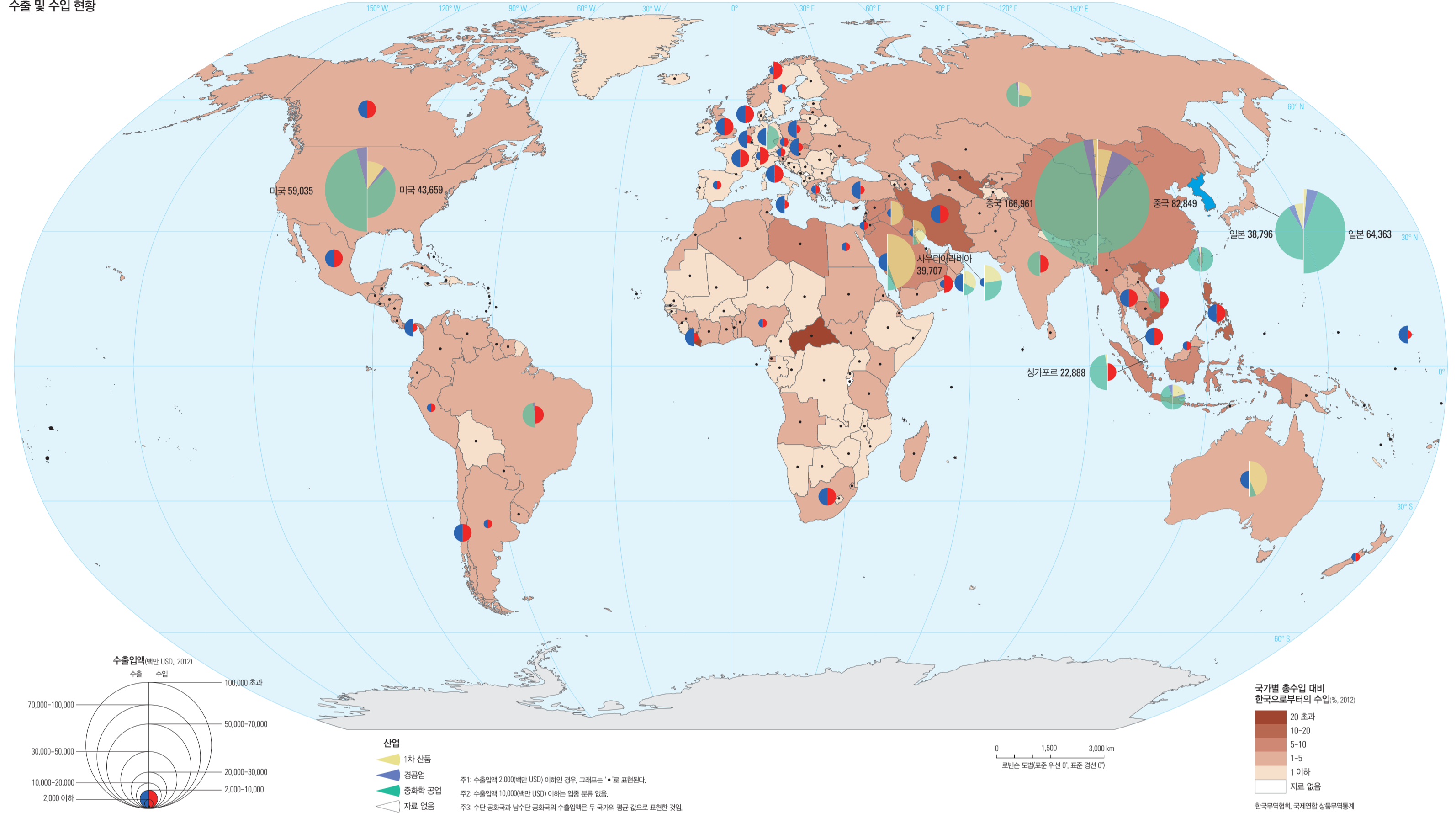


국제 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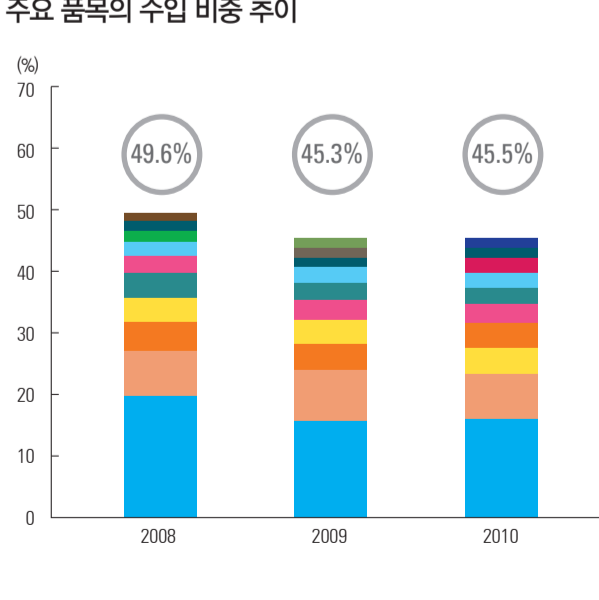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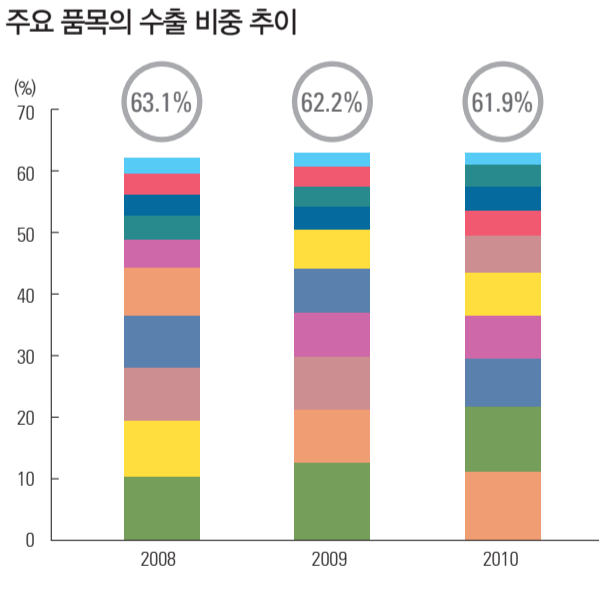
수출 및 수입 수출 및 수입 현황



국제 통상의 개념은 협의의 국제 통상과 광의의 국제 통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국제 통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와 통상·금융·보험·운송·유통·관광·건설 등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국제 통상은 상품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 노동·자본·기술·경영 능력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투자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제 통상은 국제 무역 및 국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환경에 노동, 기술, 경영 등에 관한 국제 규범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 통상의 주요 이슈는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은 국제법 및 규범 기반의 국제 협상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국제 무역, 해외 및 외국인 직접 투자, 해외 자원 개발 현황을 통해 한국이 국제 통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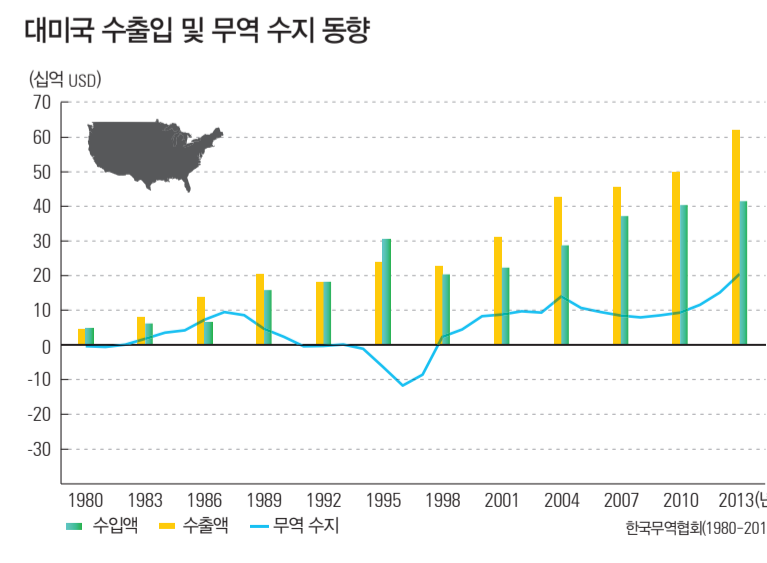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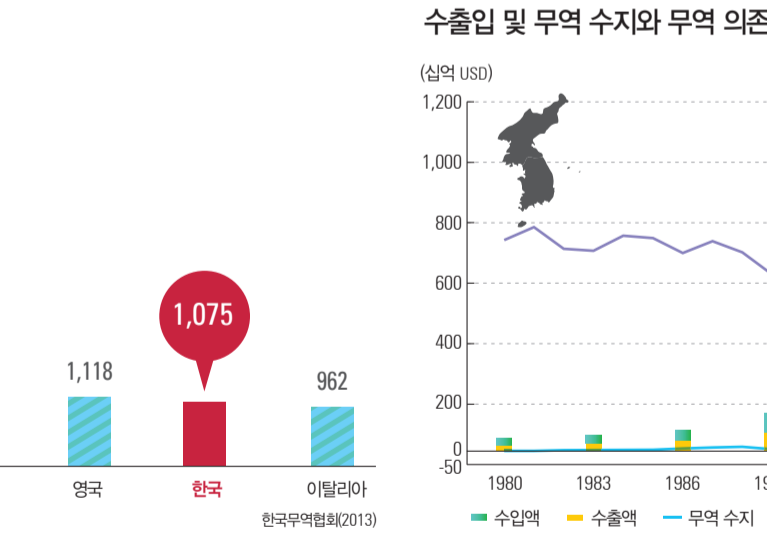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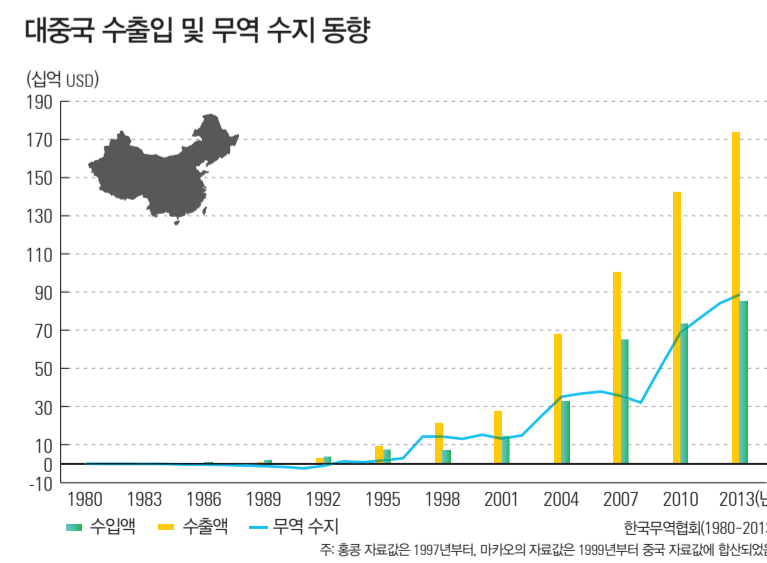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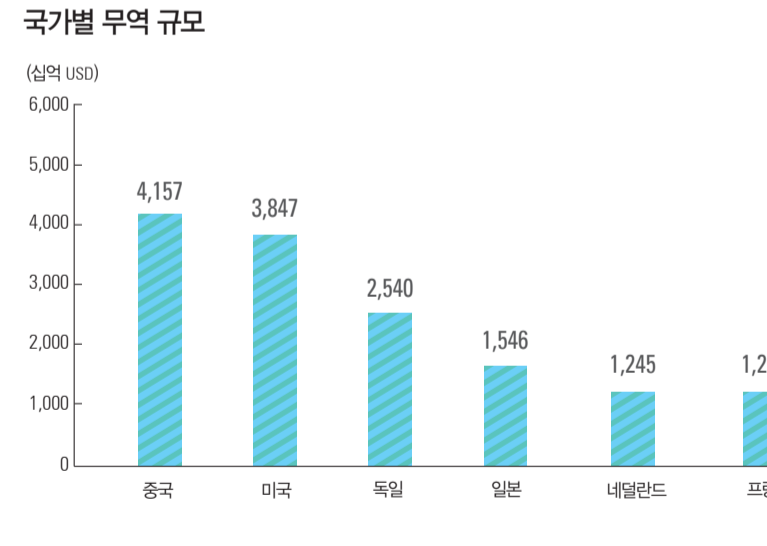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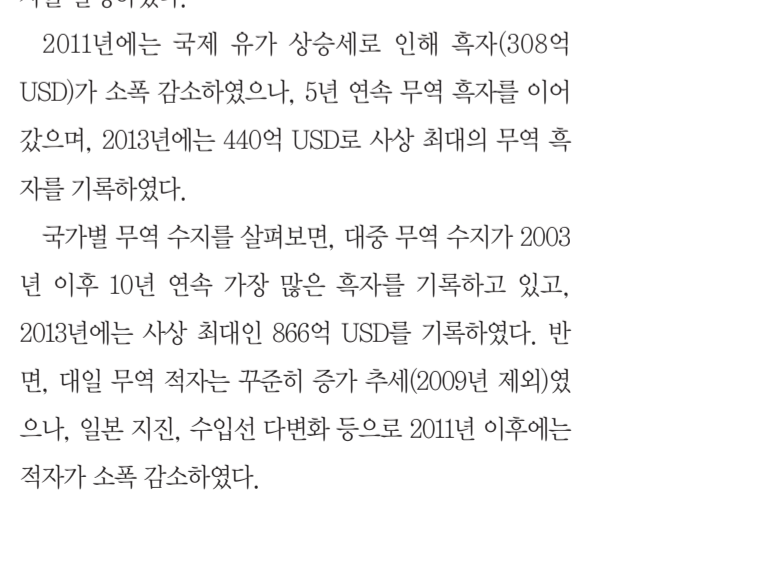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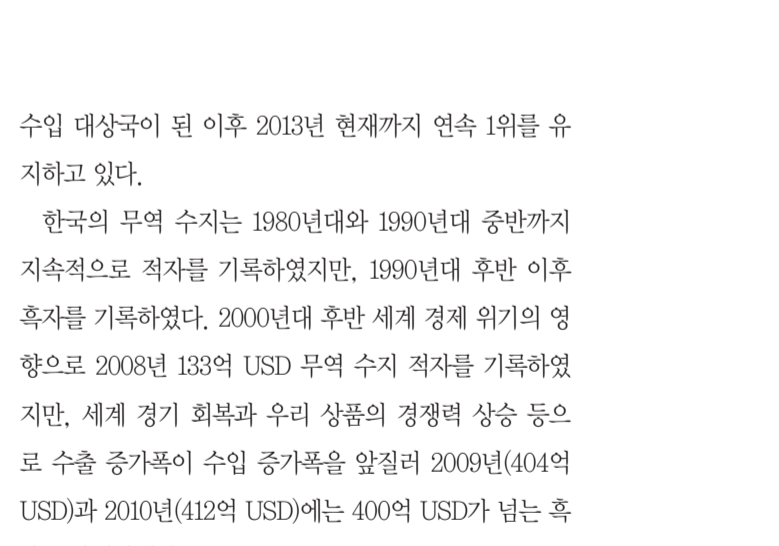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USD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 1,000억 USD를 초과하였으며, 2012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USD를 돌파하였고, 2013년 현재 1조 752억 USD(수출: 5,596억, 수입: 5,515억)를 달성하였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며, 2013년 기준 한국의 세계 무역 규모 순위는 8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4년에 62.5%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85%를 넘어섰으며, 2013년 현재 8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최근 10여 년 간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한국의 수출 규모는 1,504억 USD

에서 2013년 5,596억 USD로 증가하였으며, 무역 수지도 93억 USD에서 440억 USD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수출 품목별로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 꾸준히 5대 수출 품목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3.7%에서 2011년 42.3%로 소폭 감소하였다. 상세 품목별로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이 201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수출 1위 품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 제품이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에 이어 수출 2위 품목을 차지하였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08년 7.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지만, 2011년에는 D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3위에 그쳤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수요 회복과 최근 발표된 EU, 미국과의 FTA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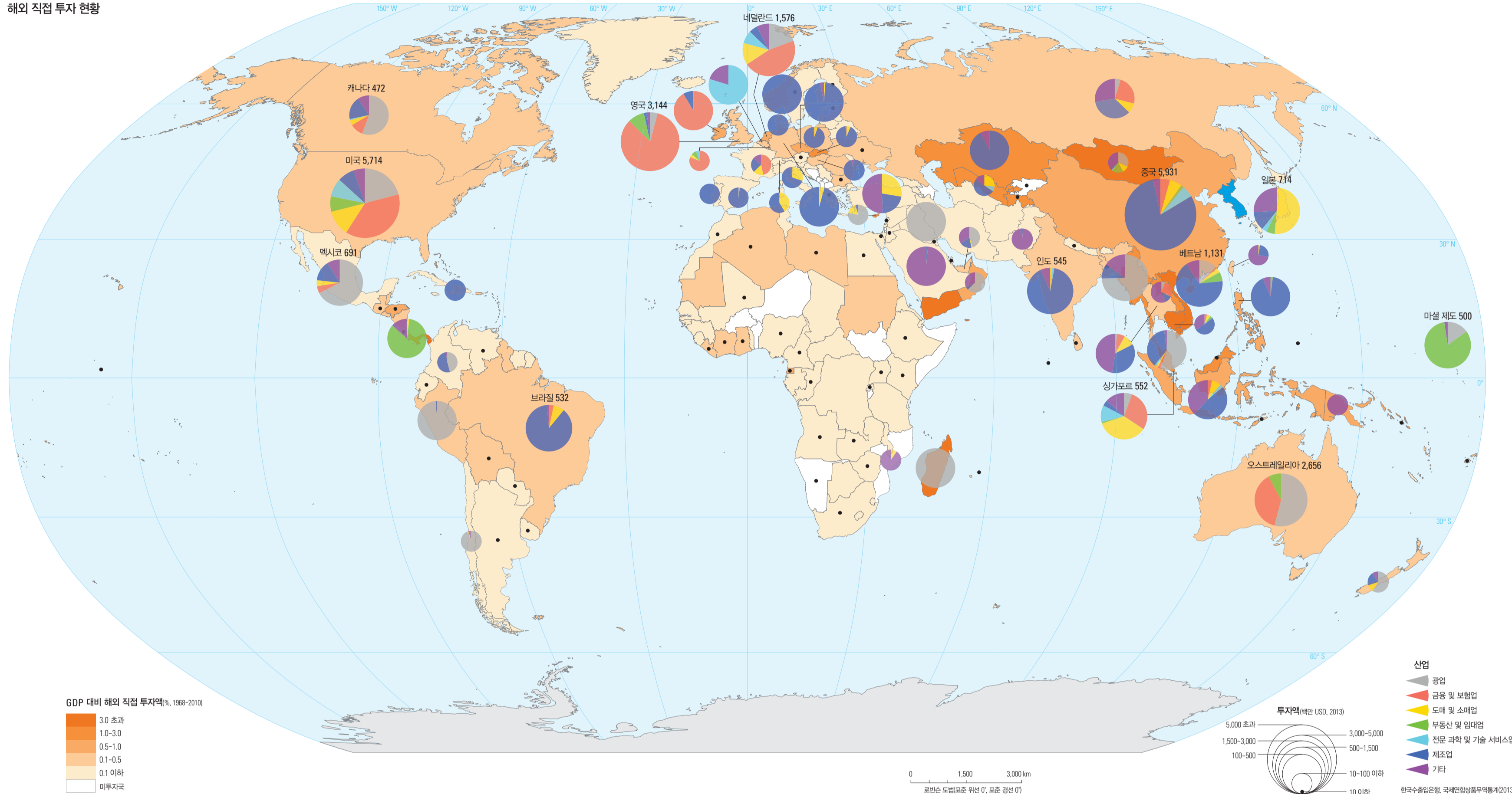
한국의 수입 규모도 수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 및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그 이후에는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물량 및 단가 상승,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국제 유가와 수입 증가율이 동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 도입 물량 확대 등으로 32.9%를 차지하였다. 특히, 원유는 전년 대비 46.8%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연간 1,000억 USD 이상의 수입을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8년 31.1%에서 2011년 27.5%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동기간 68.9%에서 72.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도 역시 중국이었으며,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1위

수입 대상국이 된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후반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33억 USD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세계 경기 회복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질러 2009년(404억 USD)과 2010년(412억 USD)에는 400억 USD가 넘는 흑자를 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세로 인해 흑자(308억 USD)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이어갔으며, 2013년에는 440억 USD로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대중 무역 수지가 2003년 이후 10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866억 USD를 기록하였다. 반면, 대일 무역 적지는 꾸준히 증가 추세(2009년 제외)였으나, 일본 지진,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2011년 이후에는 적자가 소폭 감소하였다.



해외 직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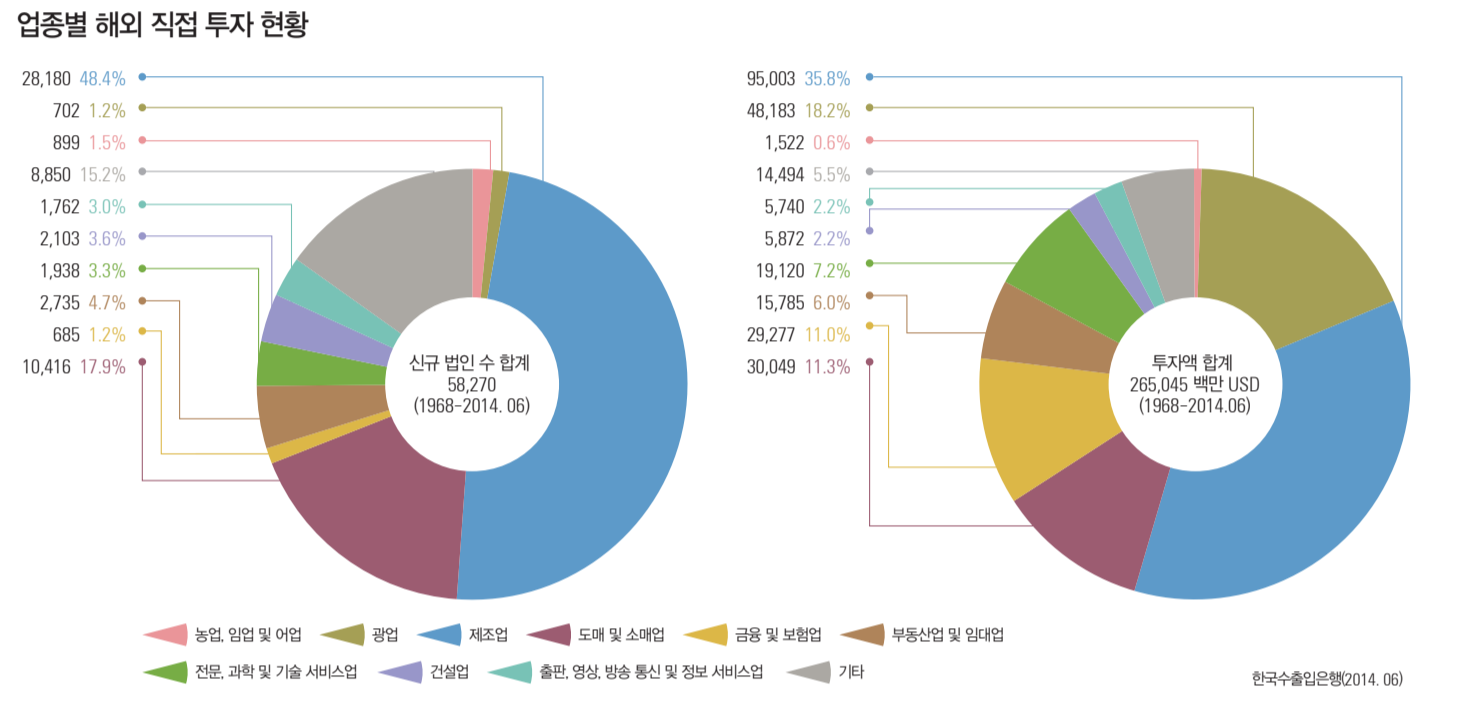
해외 직접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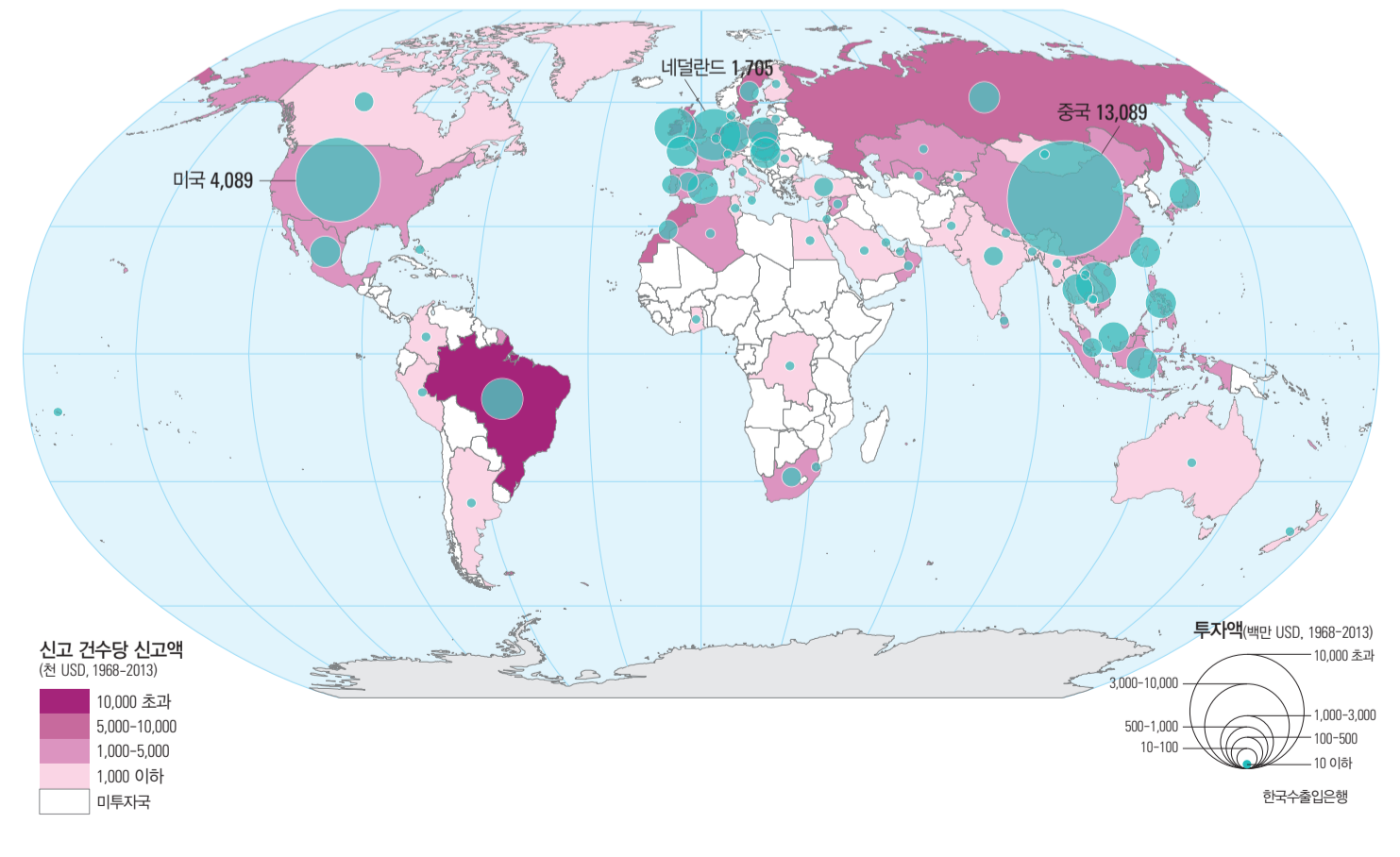
해외 직접 투자는 신규 투자, 인수 합병, 기존 해외 시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사업 행위이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는 기업 특유의 우위, 내부화 우위, 입지 특유의 우위를 통해 기업에 보다 나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진보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처음으로 10억 USD를 초과하였고, 2007년에 227억 USD를 기록하여 17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하여 2013년 현재 241.4억 USD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2014년 6월 현재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누계액은 2,650억 USD에 달하고, 해외에 신규로 설립되거나 인수된 해외 법인은 58,270개에 이른다.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아시아, 북미, 유럽이 각각 45.6%, 23.9%, 1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과 미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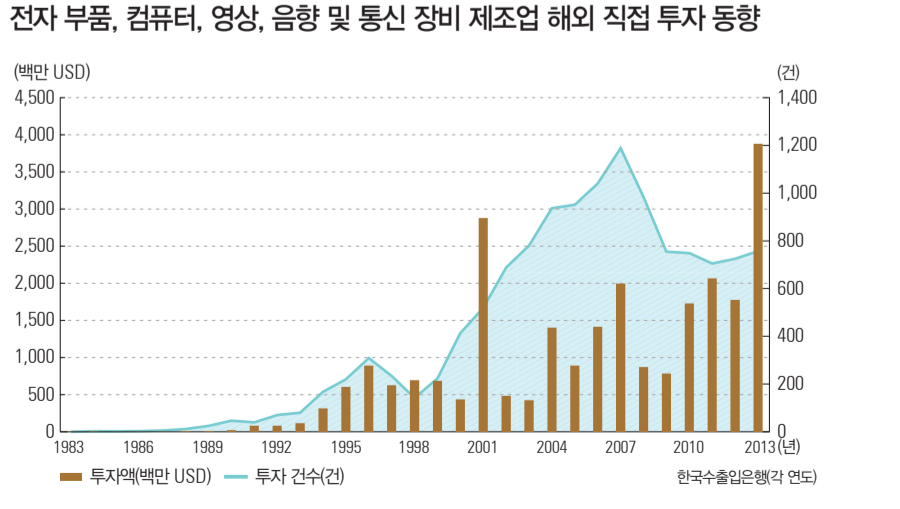
다. 예를 들어,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27.3%를 차지하여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미국이 20.5%, 영국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 국가에 대한 비중은 3%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 베트남 투자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4%를 차지하여 한국의 4번째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몇몇 투자 유치국의 국내 총생산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파나마, 몽골, 라오스 국내 총생산에 각각 15.0%, 8.3%, 5.7%, 5.2%, 3.3%,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월 말 현재 제조업의 누적액이 950억 USD이며 전체 투자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광업이 13.2%, 도매 및 소매업이 11.3%, 금융 및 보험업이 11.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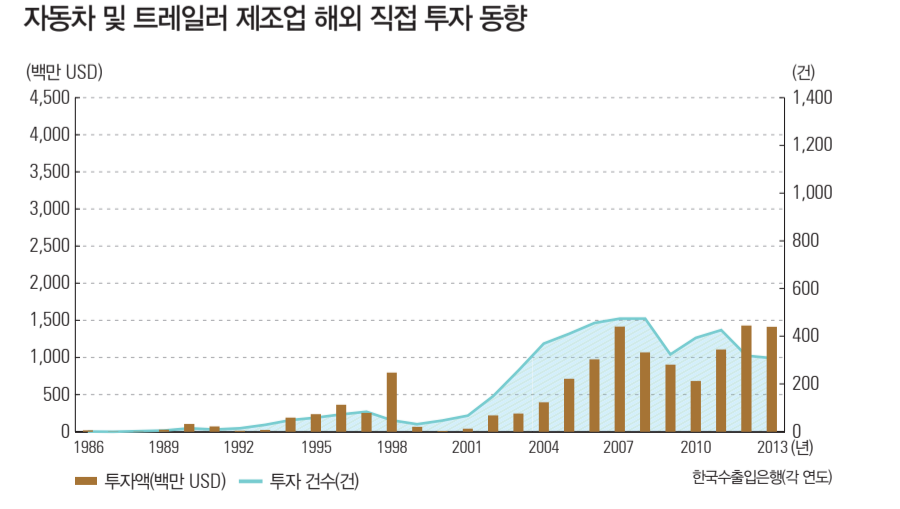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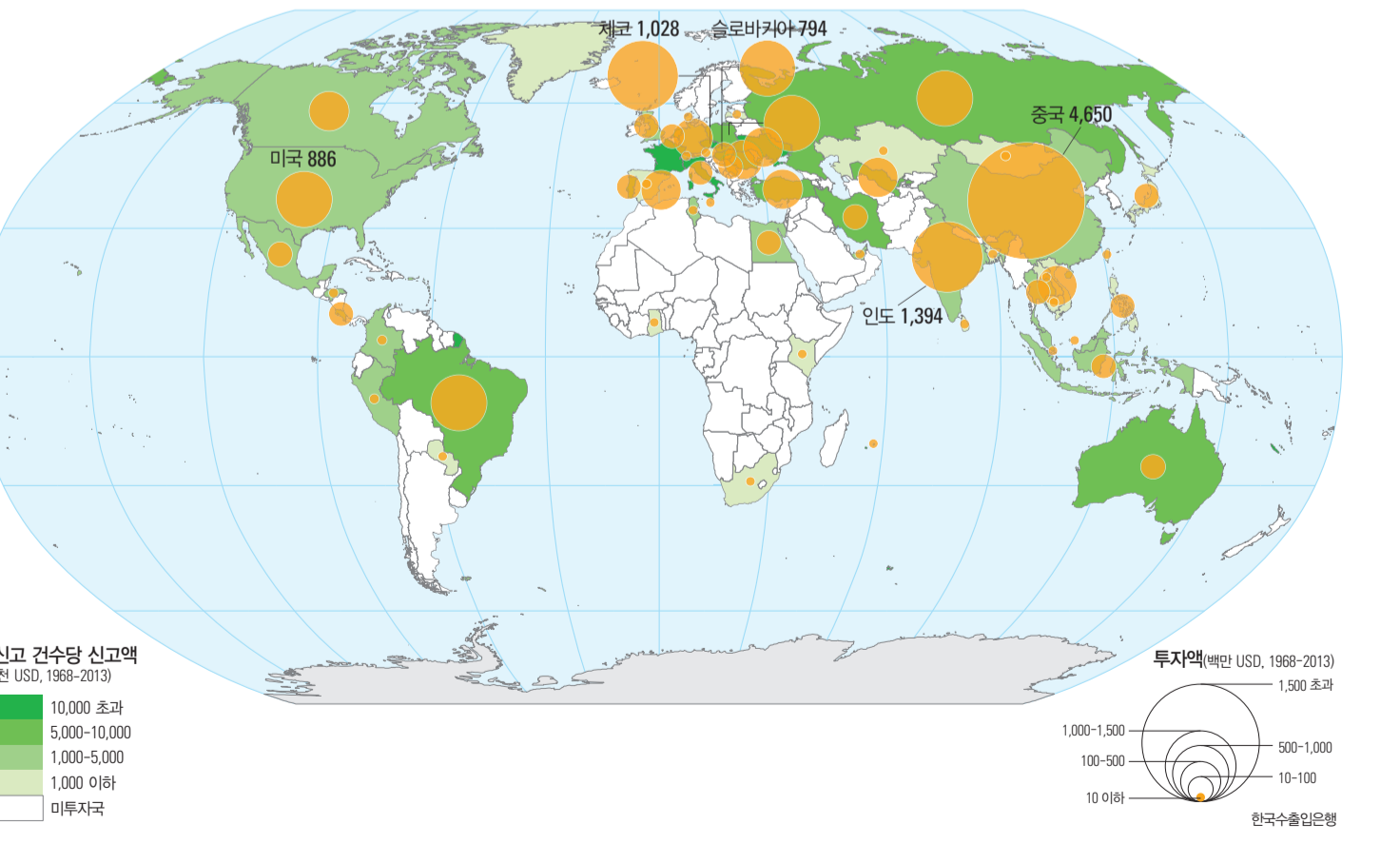
제조업 부문 중에서 살펴보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각각 27.4%와 13.9%로 전 기간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업은 2013년까지 73개국에 280.4억 USD를 투자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업종의 투자액은 1990년 0.8억 USD에서 2013년 38.8억 USD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업 부문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62.5%, 홍콩 포함)과 미국(15.8%)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6.0%), 베트남(3.1%), 아일랜드(2.6%), 일본(2.0%)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2013년까지 57개국에 136.7억 USD를 투자하였으며, 1986년에 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업종의 투자액은 1990년 1.1억 USD에서 1998년 8.0억 USD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 0.4억 USD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4.1억 USD를 기록하였다. 한편, 본 업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37.0%, 홍콩 포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11.5%), 체코(7.8%), 미국(6.8%), 슬로바키아(6.0%), 브라질(5.4%)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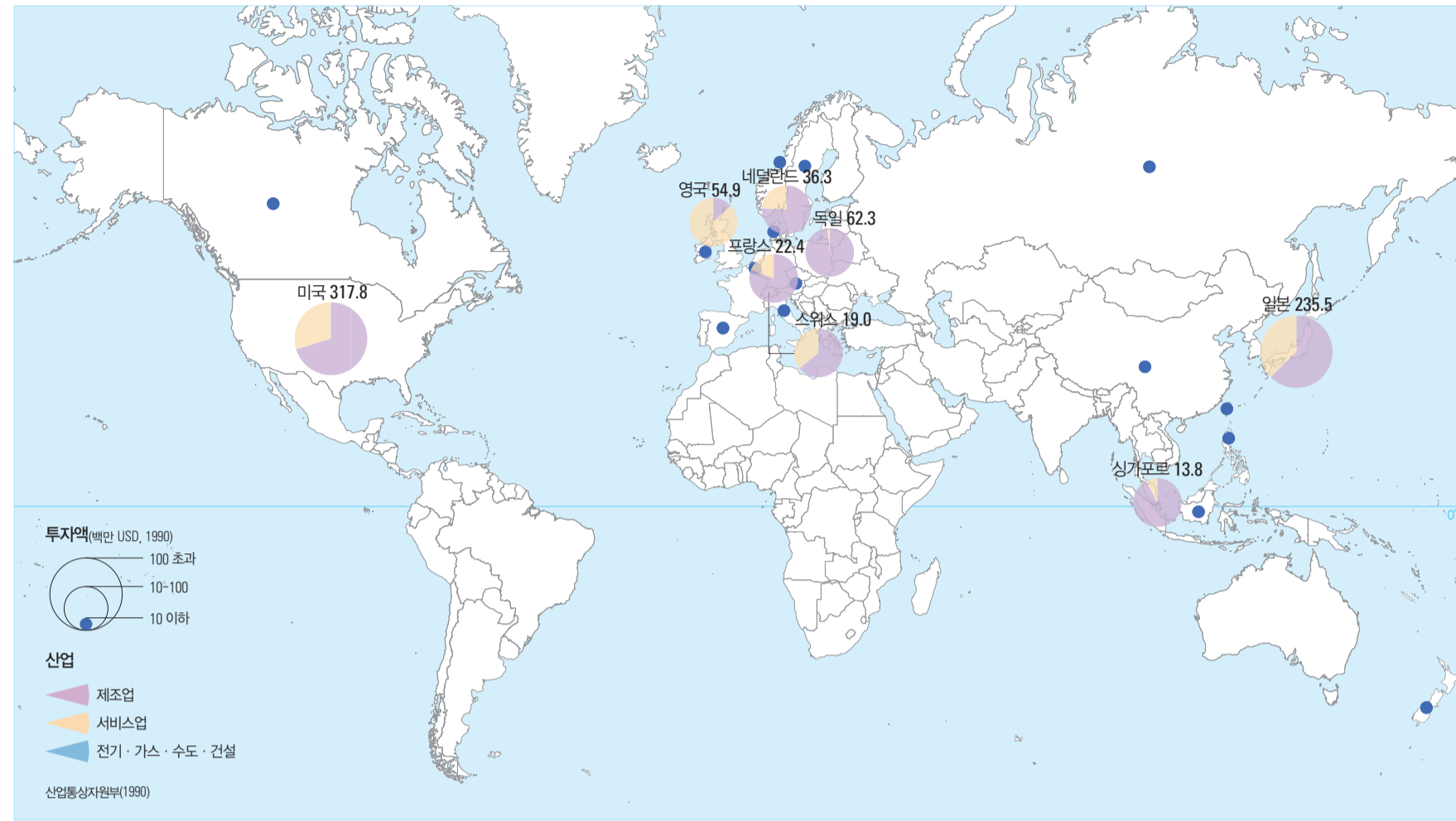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 투자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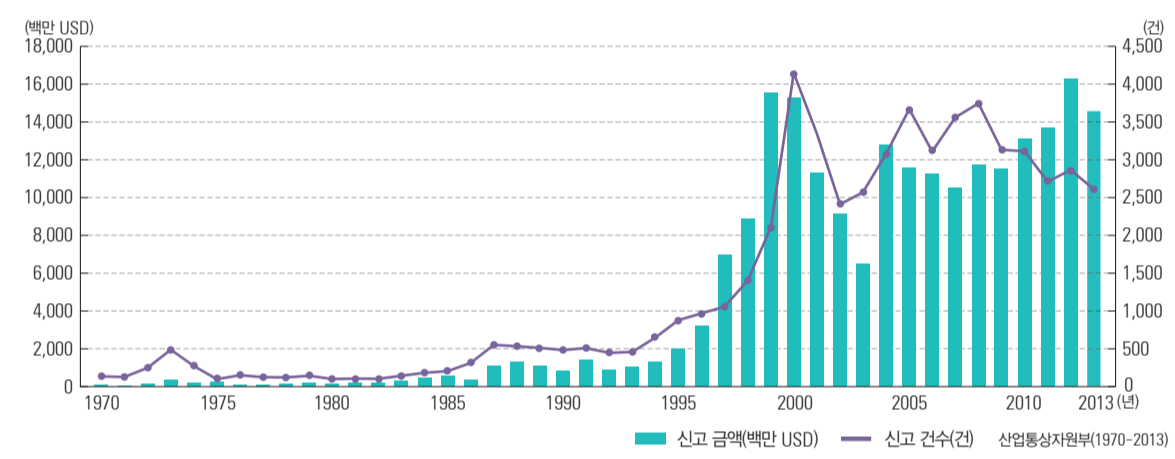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80년대에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9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출범시켰고, 신고 수리제를 단 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2010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관련 중앙 행정 기관이 모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FTA 효과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8억 USD(신고 금액 기준)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13년 145.5억 USD로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1990년 26개국에서 2013년 78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3)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는 2008년 23위에서 2012년 8위로 상승하였으며, AT Kearney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뢰 지수도 2007년 24위에서 2011년 19위로 5단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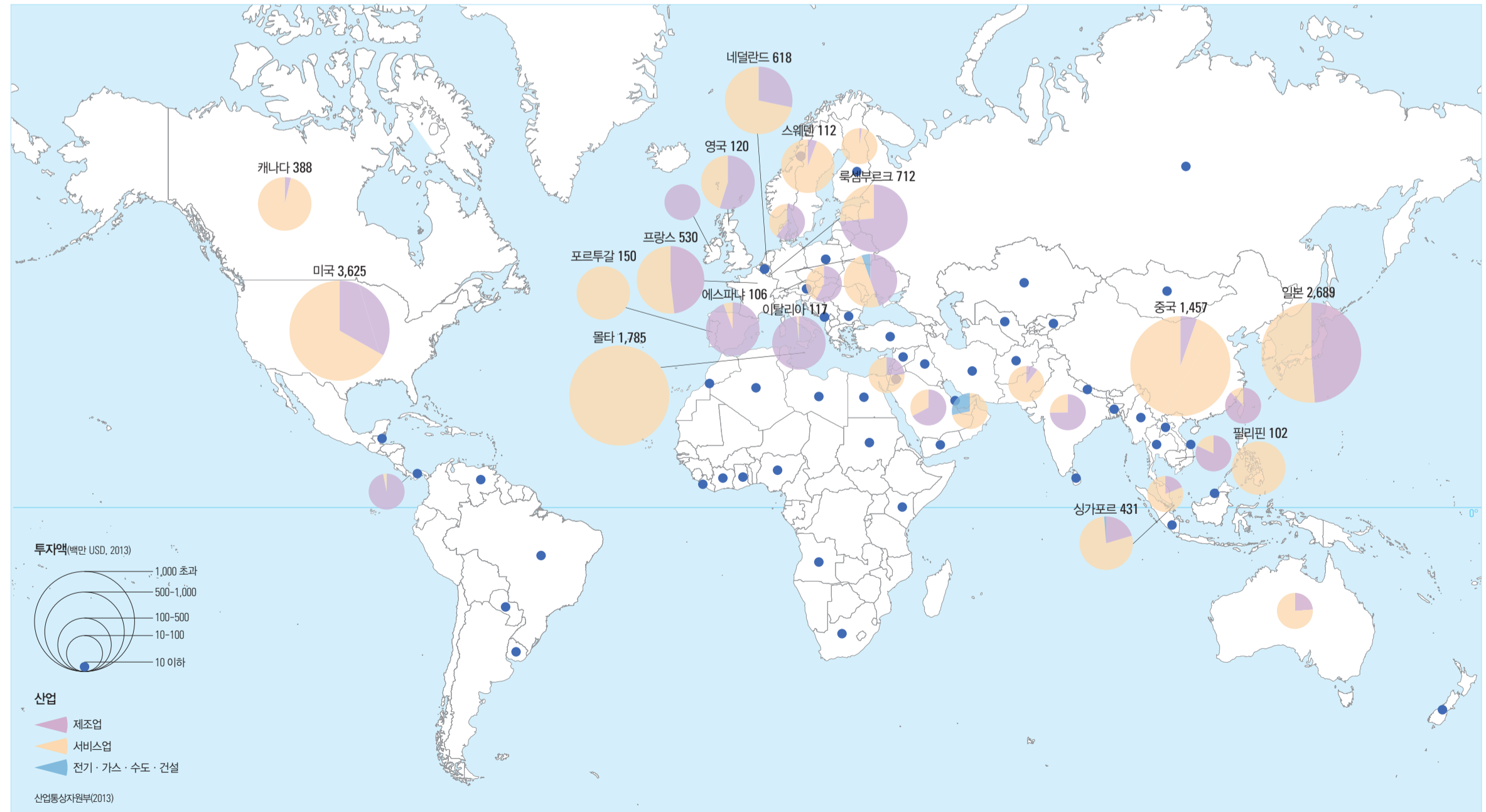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의 특징을 지역 및 업종별로 살펴보면,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미국(39.8%)과 일본(29.5%)이 지배적이었으나, 2013년에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각각 36.2억 USD(25.9%), 26.9억 USD(12.8%)로 전체의 43.7%로 감소하였으며, 유럽,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48.7억 USD(30.8%), 14.6억 USD(10.4%)로 전체의 41.2%로 크게 증가하였

다. 또한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업종은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지배적이었지만, 2013년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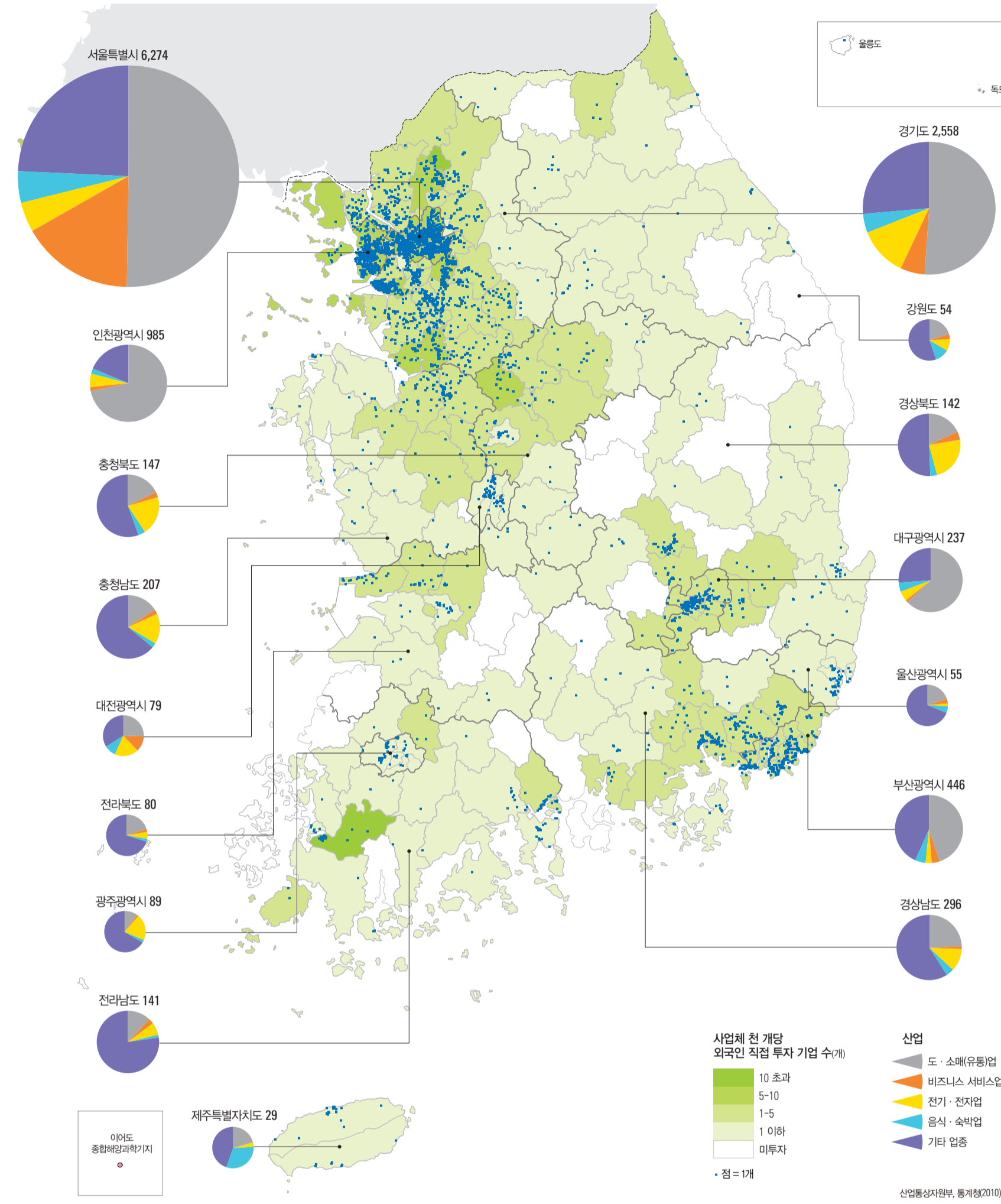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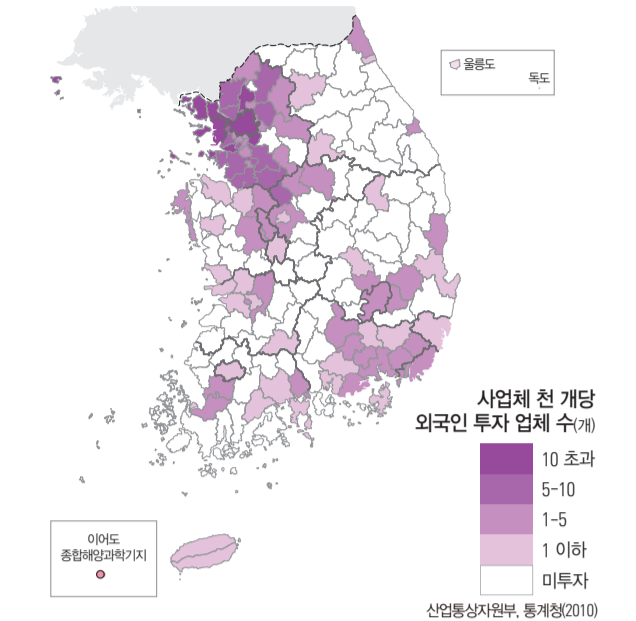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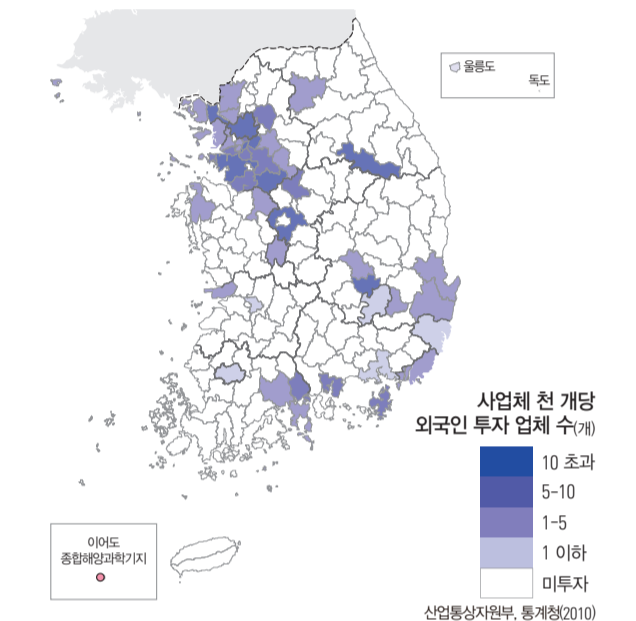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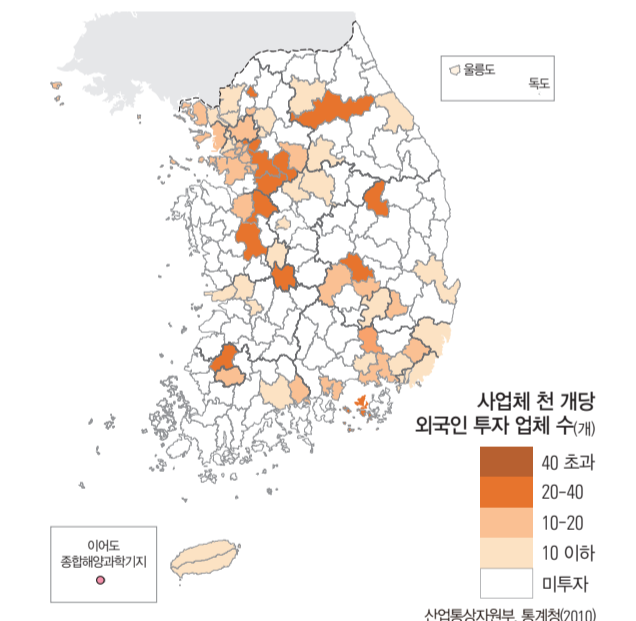
도·소매(유통)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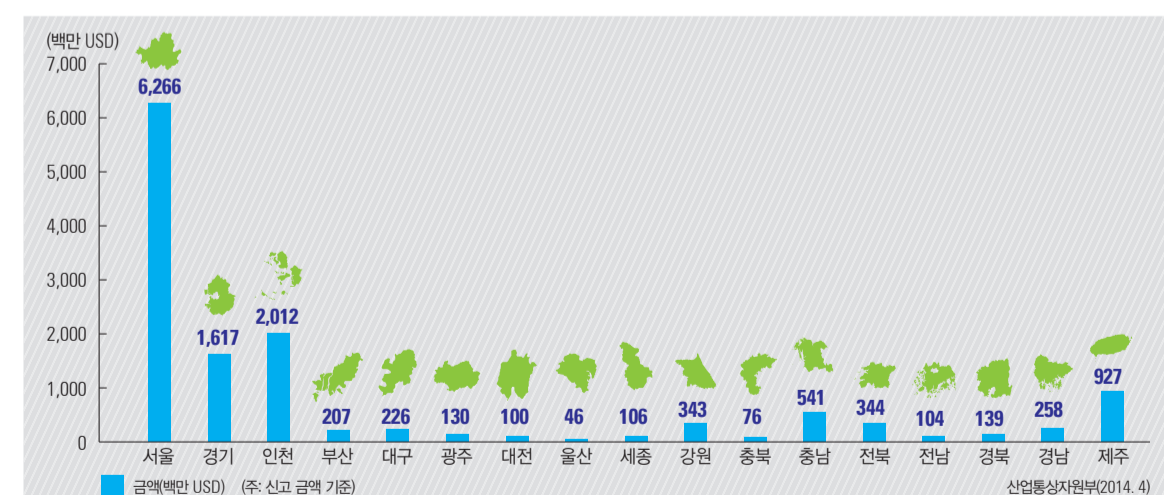
비즈니스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전기·전자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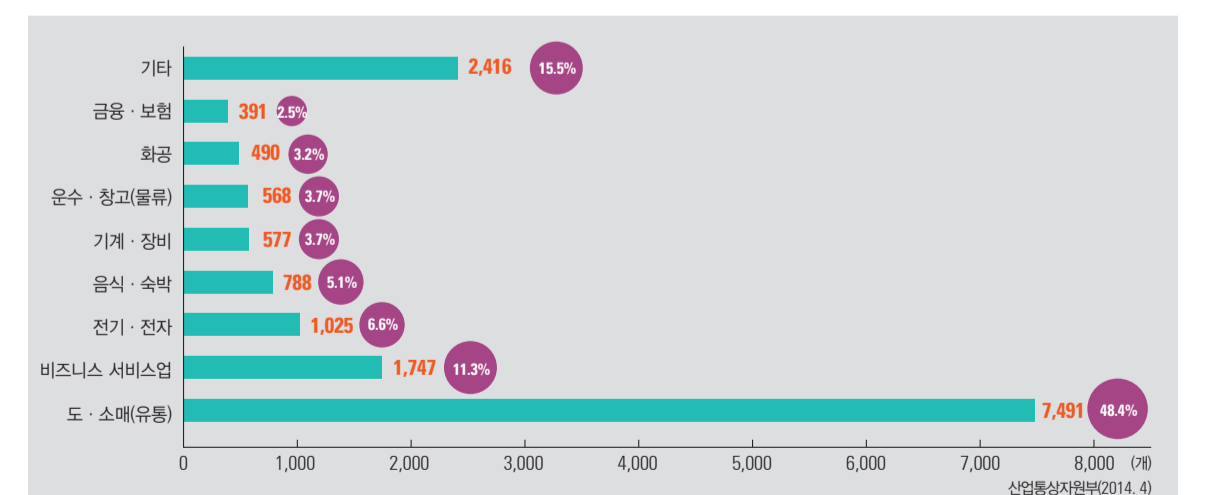
지역별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2013년)



2013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145.5억 USD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98.95억 USD(68%)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 62.66억 USD(43.1%),

인천광역시 20.12억 USD(13.8%), 경기도 16.17억 USD(11.1%), 제주도 9.27억 USD(6.4%) 순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업종별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현황(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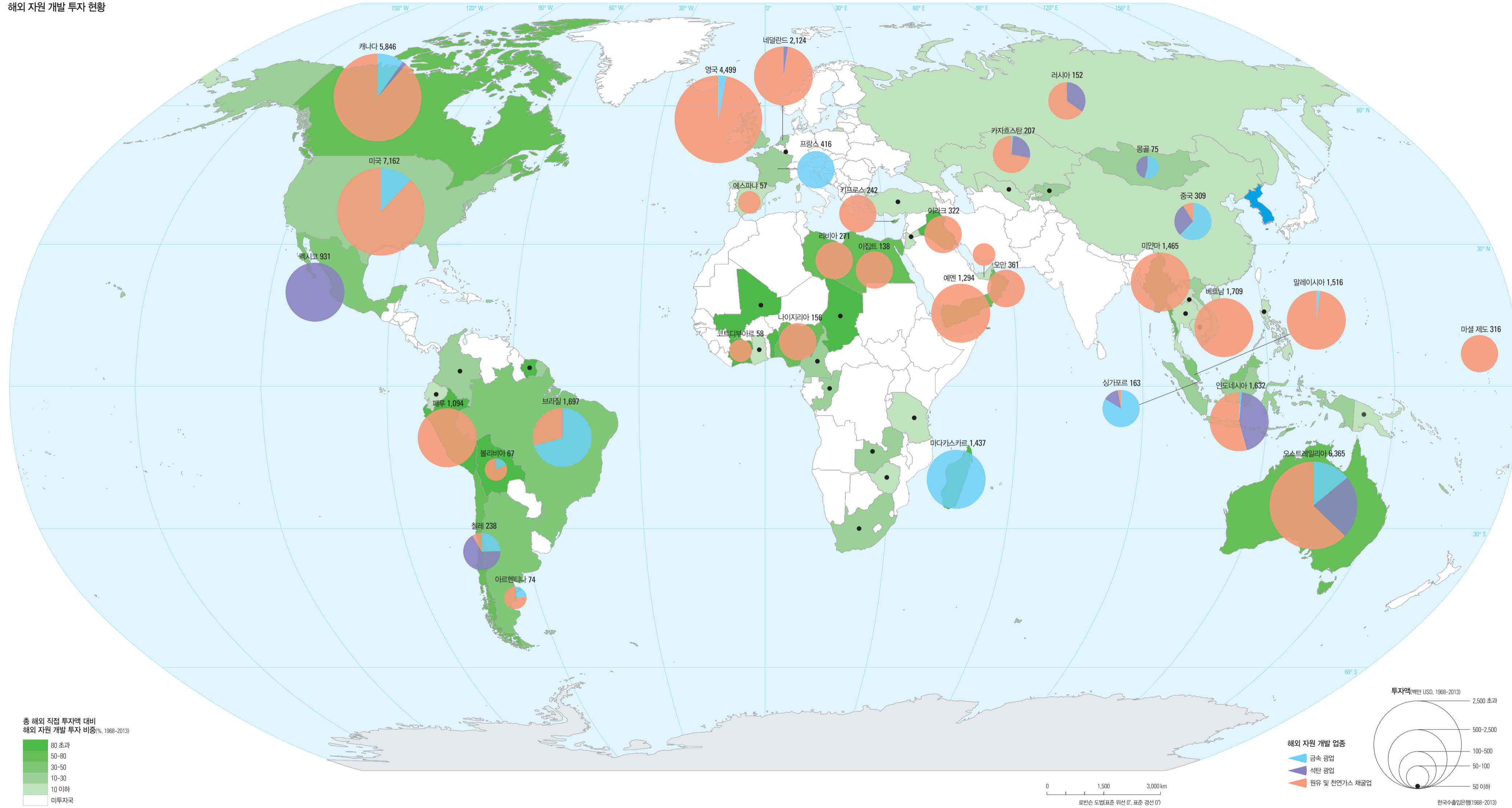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기업 정보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 15,493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유통)업 7,491개 (48.4%), 비즈니스 서비스업 1,747개(11.3%), 전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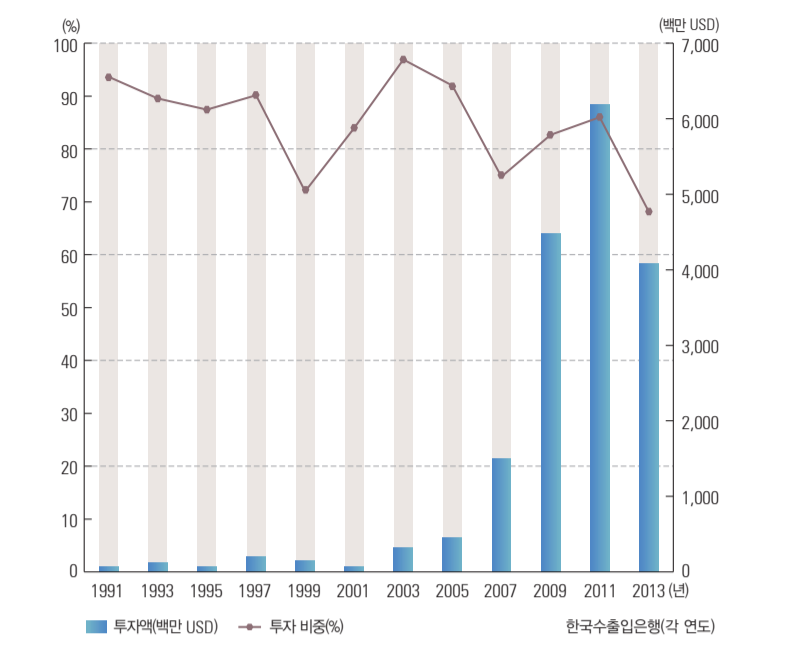
자업 1,025개(6.6%), 음식·숙박업 788개(5.1%), 기계·장비업 577개(3.7%), 운수·창고(물류)업 568개(3.7%), 항공업 490개(3.2%), 금융·보험업 391개(2.5%) 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해외 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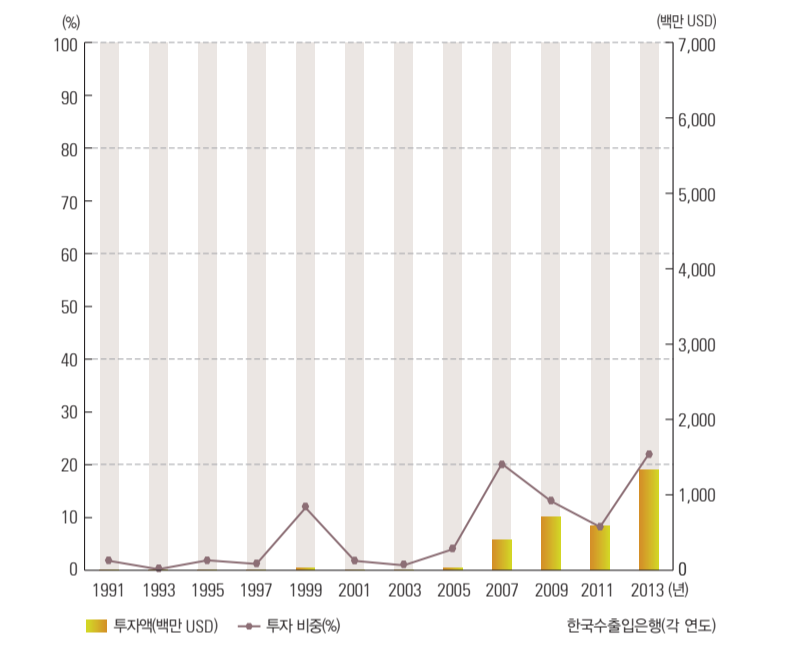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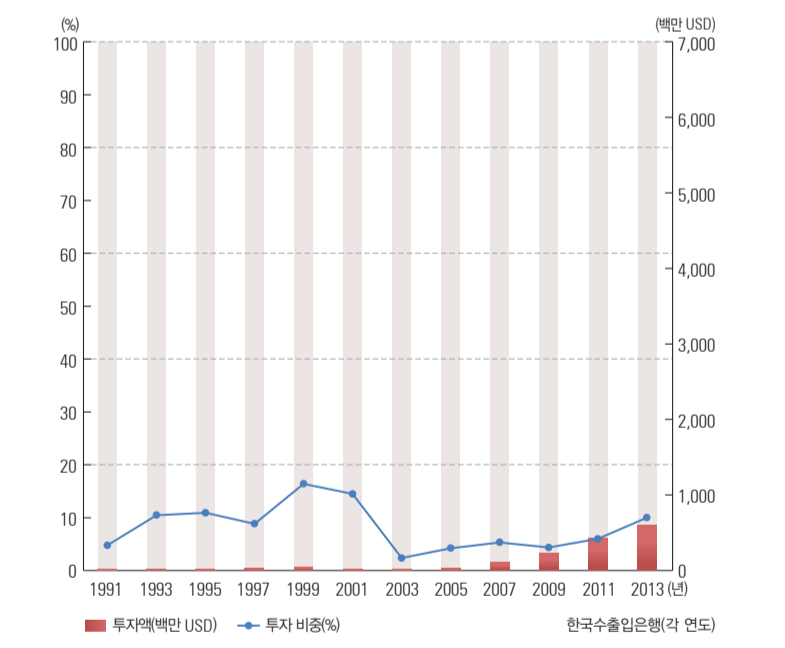
원유 및 천연가스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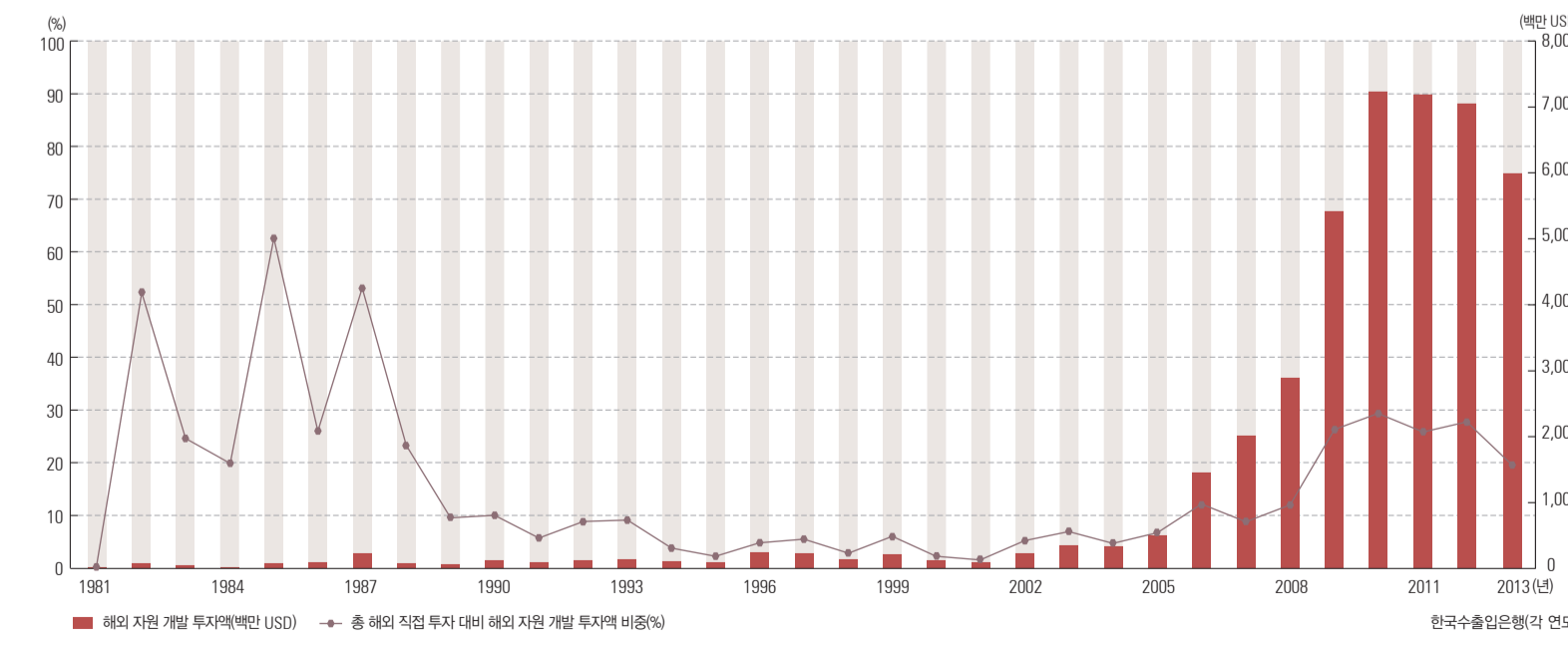
금속 광업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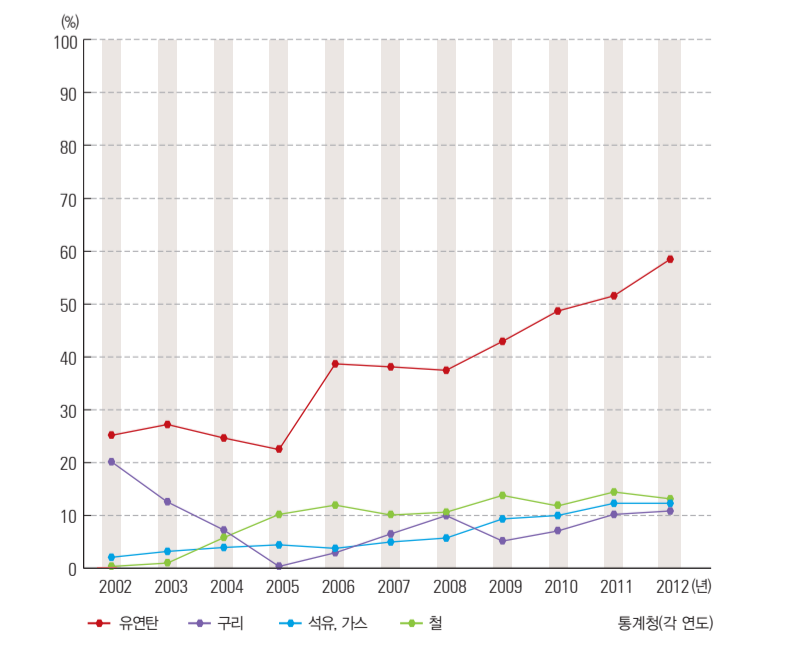
석탄 광업 투자 추이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추이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률 변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최근 글로벌 자원 민족주의 확산, 자원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대내외 환경 약화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수입의 변화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적 자원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원 수입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 수지 약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1977년 최초의 해외 자원 개발 이후 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 개발 환경에 대응

하기 위해 지난 37년 간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주도하여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처음으로 10억 USD 이상 투자하였다. 2009년 이후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년 현재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59.9억 USD로 1990년에 비해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해외 투자 중 해외 자원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우리나라 해외 자원 개발 비중은 8.8%에서 2012년 27.8%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비록 1980년대 초반 및 중반에 해외 자원 개발 비중이 50% 이상 차지했지만,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

업 부문에서의 한국 해외 직접 투자가 아주 낮게 발생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자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유 및 천연가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들어 석탄, 비철금속, 철광석 등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투자액은 40.8억 USD로 20여 년 간 크게 증가했지만, 2003년 이후 해외 자원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원유·천연가스 부문의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투자 비중은 2003년 96.9%에서 2013년 현재 68.1%로 감소한

반면, 금속 광업 부문의 투자는 0.9%에서 22.1%, 석탄 광업 부문의 투자는 2.2%에서 9.8%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급증하면서 자원에 대한 자주 개발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주 개발률은 소비량(또는 수입량) 중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원유 및 천연가스의 자주 개발률은 2002년 2.8%에서 2012년 13.8%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엔탄의 자주 개발률은 2002년 24.2%에서 2012년 57.7%로 급증하였다. 또한 주요 광물 자원인 철도 2003년 0.8%에서 2012년 14.5%로 크게 증가하였다.